



월은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9>

경전에서 부처님 만나고 스승 찾아가야

(730호 이어서) 그 호념의 하나가 부처님의 정명(定命)이 백세(百歲)이신데 칠십구세로 열반에 드시고 나머지 복을 우리들, 유교제자들의 유음(遺蔭=福)으로 남겨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우리들은 상당히 후덕한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 설산동자(雪山童子)나 살타파론보살처럼 생명을 건 고행을 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마음으로 일칭나무불(一稱南無佛), 즉 편안한 마음으로 '나 무불' 한 마디만 부르면 모든 공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보처존(補處尊)이신 관세음보살께서는 이

이 세 가지 덕목은 우리들의 힘든 과제이며 광영스러운 특혜다.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대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의 은갖 고통을 덜어 주는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과 광영을 동시에 물려받았다. 그러나 진실한 신심 하나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나니, 이것이 불교의 불가사의한 힘이며, 그 힘은 경전을 독송하는 정진에서 생긴다.

우리들 말법유교제자들은 경전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고, 경전을 통해 진리를 알고, 경전을 통해 스승을 찾고 도반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 생존 시에는 늘 부처님이 계시니 자주 찾아가면 많이 들을 수 있었

편안하게 '나무불' 부르면 모든 공덕 이루어지고 '관세음보살' 한 번만 불러도 모두 해탈할 수 있어

땅의 우리들을 연민히 여기사, '임위급난 중(臨危急難中) 칭명심해탈(稱名悉解脱), 아무리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나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모두가 해탈하게 하리라'고 서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부처님은 나의 거룩하신 스승이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진정한 길이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집단은 나의 든든한 길잡이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침으로써 불제자의 자격이 갖추어지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꿈속에서도 열불을 놓지 않게 되면 이미 불퇴전(不退轉)의 지위에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특혜가 내려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남겨 주신 유익을 찾아먹을 자격을 얻었으니, 다음은 그 자격에 걸맞은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 임무란 다른 것이 없다.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감사하다는 생각을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첫째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서원이요, 둘째 자기 마음에 때나 그늘이 지지 않도록 선지식을 찾아다니거나 집에서 경전을 독송하며 정진하는 일이고, 셋째 가족과 이웃에게 부처법문의 거룩함을 알리는 일이다.

지만 오늘날에는 경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경전마다 지경공덕(持經功德), 즉 경전을 독송한 공덕을 설하셨으니, 경전이 계신 곳이 곧 부처님이나 존귀하신 불제자가 계시는 곳이라고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다행히 요즘은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을 인터넷에 올렸다. 전부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진행됐으니, 우리 말세유교제자들에게는 반가워해야 할 쾌거다.

열람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열고 포탈사이트 검색창에 '동국역경원'을 치면 창이 뜬다. 거기서 한글대장경을 치고, 다시 가나다순에 들어가 경명의 첫 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찍으면 원하는 경이 나온다.

꼭 무슨 경을 보아야 할지 짐작이 안 가는 분은 경전의 이름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으니, 경명 끝에 '○○인연경'이라 한 것은 주로 인과법문이고, '○○공덕경'이라 한 것은 주로 공덕법문이고, '○○본생경'이라 한 것은 역시 인과 인과법문으로서 주로 전생 이야기가 들어 있으니, 이들 쉬운 경부터 읽어가는 노라면 차츰 독서력(讀書力)이 생겨 무진법장(無盡法藏)을 혼자서 임의 당당(堂堂)한 유교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마음으로 발원하자.

불선사 조실

업력으로 살긴 쉬워도 원력으로 살기는 어렵다

정락 스님 법문집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다' ... 행복의 열쇠 찾기 가르쳐

1994년 조계종 개혁 이후 첫 선출직 포교원장을 역임했던 정락 스님(만의사 회주)의 '법문'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웅변적이기 보다는 자상하고 쉬운 비유로 법문의 '잡맛'을 보여주는 정락 스님은 수첩이 법문 일정으로 빼곡하다. 안양 한마음선원에서는 매일 첫째 주 일요일에 법문을 하는데, 28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또 서울대 병원에서 25년째 매주 금요일 법문을 하고 사법연수원이나 기업체 공무원교육 등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맛있게 요리해 전해준다.

"무진장 스님의 법문과 암도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두 분의 법문 스타일 중간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정락 스님의 법문은 다양한 비유와 정곡을 찌르는 생활 이야기



정락 스님.

리고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이루어진 '명품'이다. 법회 현장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대중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는 정락 스님의 법문 이력 30년 만에 첫 법문집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다"라는 책의 제목이 좀 모호하게 느껴진다. 도대체 '이렇게'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책을 읽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 우선 책 속의 이야기 두 토막을 맛보자.

어떤 신도님이 장갑 한 켤레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겨우내 따뜻하게 잘 썼는데 어느 날 장갑이 한 짝 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짝을 다 잃으면 주운 사람이 잘 쓸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한 짝을 찾을 생각부터 하였지요. 이렇듯 생각을 선택하는 것에도 눈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졌다면 그런 판단이 앞설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물어보면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아까워서 찾으려는 생각이 앞서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판단은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돼야 합니다.

#머느리가 설거지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이 머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머느리 잘 못 얻었다'고 생각하며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하다가 사위에

게 같이 하자고 하니가 사위는 '남자가 왜 부엌에 들어가느냐'며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할머니는 '사위를 잘 못 얻었다'며 속상해 합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네 일 내 일 없이 사이좋게 같이 하니 참 좋다'고 생각하고, 딸네 집에서는 '사위가 사나이 대장부답다'고 생각하면 속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치로는 잘 아는 일이지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가 여유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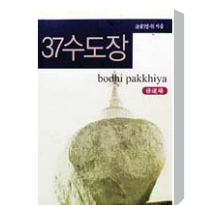
간결하게 정리된 법문을 통해 정락 스님이 한결같이 당부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업력(業力)으로 살지 말고 원력(願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살행에 해당하는 원력의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어느새 중생심에 이끌려 업력의 행동을 하는 게 보통사람들의 삶이다. 장갑을 잃어버리고 처음 하는 생각이 업력과 원력의 차이다. 또 머느리와 사위를 보는 할머니의 마음자리가 업력에 치우친 대표적인 사례다.

"나는 업력보다는 원력으로 살고 싶었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수행자로서의 원력 보다는 중생의 업력에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늘 나는 원력으로 살고 싶어요."

정락 스님은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려는 마음마저 놓아 버리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업력보다는 원력에 의해 살아가는 길을 다양하게 제시해 준다. 원래대왕 앞의 업경대는 원력보다는 업력에 의한 행위를 더 잘 녹화하므로 원력의 삶에 중독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게 스님의 당부다.

불광출판사 펴냄 11만2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근본불교 수행의 모든 것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길



37수도장
법수 지음
생각나는 퍼냄
1만5000원



행복한 출근길
법문 스님 지음
김영사 펴냄
1만800원

37수도장이란 초기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수행의 총칭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불교의 교리들이 그 바탕이다. 4념처, 4정단, 4여의족, 5근, 5력, 7가지, 8정도를 합해 37수도장이라 한다. 이 지침은 부처님이 행했던 수행이며 그 각각의 수행에 대한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원리와 방법 등을 소개한 것이 <37수도장>이다.

저자 법수 거사는 중앙승가대학 역경과를 나와 초기불전의 세계에 심취했다. 37수도장의 수행에 입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근본교리에 대한 설명은 물론 본격적인 수행 과정에서 놓치거나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다.

30년 전 정토회를 꾸린 이후 지금까지 인권과 통일 평화 운동을 즐기게 이끌어 온 법문 스님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내놓았다. 남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 희생하라고 가르치지만 법문 스님은 다르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뿐이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 준다. 상생과 조화의 가르침은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사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남을 이해하는 삶, 습관을 뜯어 고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 주는 삶을 바란다면 '행복한 출근길'에 동참하라.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이 없을 단상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법문 스님의 죽은즉설	법문	정토
4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상진	마음의 숲
5	행복한 출근길	법문	정토
6	깊고 깊은 언꽃 가르침	해국	시유수
7	광명전기도법	일타, 김한준	호림
8	인과경	한담	선
9	세아본 소안 존재한다	월호	윤주사
10	문인의 수행 문 밖의 수행	월호	불광출판사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3권 전 30권중 제 13권 출간!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을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최대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빛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승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빛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등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 1,250나한 그림책 1, 2권 -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에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창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 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한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성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람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